

무안 해제면 천장리 등 5개 마을 주민

“마을 진입로 만들어 주세요”

국도상 불법 좌회전·U턴 잡아 사고위험 커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백동마을 등 5개 마을 800여 명의 주민들이 제대로 된 마을 진입로가 없어 생활의 불편을 겪는데다 사고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백동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해제면 일부 주민과 신안군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국도 24호선이 해제우회도로를 개통

하면서 천장리 백동마을 등 5개 마을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이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는 국도 24호선 위에 설치된 고가도로뿐이다. 그러나 이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신안군 지도읍 쪽에서 이 마을로 들어갈 경우 진입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불법 좌회전

이나 불법 U턴을 할 수밖에 없다. 현 경면 쪽에서 고가도로를 거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경승용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여유가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

백동마을 주민대표 황모(54)씨는 “우회도로 개설 당시 평면 교차로로 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현장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당했다”면서 “더 이상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없어 올해는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국토해양부를 항

의 방문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광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원접수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현경·지도간 국도 24호선은 도로가 좁고 노후화돼 확·포장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전남쌀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6일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의 홈경기장에서 전남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전남농협은 2천명 분의 기래떡과 '우리쌀 바로알기' 전단지를 배포하고, 관람객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10kg들이 쌀 1포씩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함평군 순회서비스 '한사랑팀' 인기

“복지 손길 필요하세요”

함평군 복지서비스팀인 '한사랑팀'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월 1회 읍·면별 순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서비스, 사회복지, 보건업무 등 3개 반으로 나뉘 '한사랑팀'을 구성, 각 읍·면별로 20명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을 찾아가 현장에서 복지상담과 무료 진료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한사랑팀'은 올해까지 합평을 진영리 하느리 마을회관 등을 시작으로 모두 7회, 182건의 복

지상담을 실시했다. 이중 162건은 현장에서 해결했고, 20건은 각 부서와 연계처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3명의 주민들에 대해 무료 진료를 실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디딤돌을 놓다는 평가다.

김규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한사랑팀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을 읍·면 보건지소,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연계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평=황운학기자 hwang@

장흥서 '草·木·水·卓 생약대전'

7월 30일부터 이틀간

지난 2006년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된 장흥군에서 장흥산 생약초를 활용한 생약대전이 열린다.

장흥군은 물축재 기간인 오는 7월 30일과 8월 1일 이틀에 걸쳐 '2009 정남진 초·목·수·탁(草木水卓) 생약대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생약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2010년 예정된 '보완통합의학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약요리 밭굴과 한방음식 대중화를 통해 생약초·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연부문은 카테일의 향연인 '한방 수(水)' 분야가 오는 7월 30일, 생약초(약용작물) 경연인 '초·목(草木)' 분야는 8월 1일, 밤상(한방 음식) 경연인 '생약초 탁(卓)' 분야는 8월 1일 각각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제한이 없으며 경연내용은 약용작물과 장흥 생약초 특산소재를 활용한 창작음식과 각테일 분야다.

올해는 장성읍에서 축령산까지 꽃길이 이어지며 중간에 꽃동산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 계획이다. 축령산은 779ha의 면적에 편백나무와 삼나무에서 피톤치드 향이 뿐어서 나와 최적의 삼립육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2세기 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성군은 최근 '치유의 숲'으로 선정된 축령산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강증진센터와 전망대 등을 갖춘 명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장성 축령산에선 '산소축제'

8월 7~9일 3일간

장성군은 8월 7~9일 서삼면 도암리 축령산 일대에서 'O2 생강 축

령 산 소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서삼면 청년회와 사회단체 등이 함께 축제주진위원회를 꾸리고 산림청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올해는 장성읍에서 축령산까지 꽃길이 이어지며 중간에 꽃동산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 계획이다. 축령산은 779ha의 면적에 편백나무와 삼나무에서 피톤치드 향이 뿐어서 나와 최적의 삼립육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2세기 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성군은 최근 '치유의 숲'으로 선정된 축령산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강증진센터와 전망대 등을 갖춘 명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제17회 전국민 법률경매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영희
0621364-8700
H.P 010-4608-3700

제17회 전국민 법률경매	
주제	소재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18회
제19회	제20회
제21회	제22회
제23회	제24회
제25회	제26회
제27회	제28회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제32회
제33회	제34회
제35회	제36회
제37회	제38회
제39회	제40회
제41회	제42회
제43회	제44회
제45회	제46회
제47회	제48회
제49회	제50회
제51회	제52회
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제57회	제58회
제59회	제60회
제61회	제62회
제63회	제64회
제65회	제66회
제67회	제68회
제69회	제70회
제71회	제72회
제73회	제74회
제75회	제76회
제77회	제78회
제79회	제80회
제81회	제82회
제83회	제84회
제85회	제86회
제87회	제88회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제93회	제94회
제95회	제96회
제97회	제98회
제99회	제100회
제101회	제102회
제103회	제104회
제105회	제106회
제107회	제108회
제109회	제110회
제111회	제112회
제113회	제114회
제115회	제116회
제117회	제118회
제119회	제120회
제121회	제122회
제123회	제124회
제125회	제126회
제127회	제128회
제129회	제130회
제131회	제132회
제133회	제134회
제135회	제136회
제137회	제138회
제139회	제140회
제141회	제142회
제143회	제144회
제145회	제146회
제147회	제148회
제149회	제150회
제151회	제152회
제153회	제154회
제155회	제156회
제157회	제158회
제159회	제160회
제161회	제162회
제163회	제164회
제165회	제166회
제167회	제168회
제169회	제170회
제171회	제172회
제173회	제174회
제175회	제176회
제177회	제178회
제179회	제180회
제181회	제182회
제183회	제184회
제185회	제186회
제187회	제188회
제189회	제190회
제191회	제192회
제193회	제194회
제195회	제196회
제197회	제198회
제199회	제200회
제201회	제202회
제203회	제204회
제205회	제206회
제207회	제208회
제209회	제210회
제211회	제212회
제213회	제214회
제215회	제216회
제217회	제218회
제219회	제220회
제221회	제222회
제223회	제224회
제225회	제226회
제227회	제228회
제229회	제230회
제231회	제232회
제233회	제234회
제235회	제236회
제237회	제238회
제239회	제240회
제241회	제242회
제243회	제244회
제245회	제246회
제247회	제248회
제249회	제250회
제251회	제252회
제253회	제254회
제255회	제256회
제257회	제258회
제259회	제260회
제261회	제262회
제263회	제264회
제265회	제266회
제267회	제268회
제269회	제270회
제271회	제272회
제273회	제274회
제275회	제276회
제277회	제278회
제279회	제280회
제281회	제282회
제283회	제284회
제285회	제286회
제287회	제288회
제289회	제290회
제291회	제292회
제293회	제294회
제295회	제296회
제297회	제298회
제299회	제300회
제301회	제302회
제303회	제304회
제305회	제306회
제307회	제308회
제309회	제310회
제311회	제312회
제313회	제314회
제315회	제316회
제317회	제318회
제319회	